이안의 Media In Buddha ⑦ 영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한줄요약
〈이상한 나라 엘리스〉는 전세-현세-내세로 나아가는 상징과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최근 유행하는 '환생서사'와 맞닿는다. '환생서사'는 생을 거듭해 부처가 된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생경'이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생' 돌파할 '자신의 토끼' 찾아라

원래 부처란 법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보통명사고, 붓다와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을 일컬어 아라한이라고 한다. 그런데 깨달음이 쉽지 않다보니 모든 수행자가 아라한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아라한이 다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한데 수행을 아무리 해도 붓다에 한참 못 미치는 자신이 부처가 되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리라는 조바심이 나는 수행자들도 있을 것이다. 수행을 포기하지 말라며 이번 생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생을 거듭해 수행하면 된다고 하면 언젠가 깨달음의 아라한과를 얻게 될 터이니 위안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그날이 언제가 될지 아득하기도 할 것이다.

애초에 크게 될 선재가 아닌 자기 자신은 나면서부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깨우친 붓다에 한참 못 미친다며 포기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붓다 또한 이 세상에서만 수행한 것이 아니고 전생에서도 수행을 쌓았기 때문에 최후로 태어난 이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아라한이 못되어도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스스로를 다잡으며 수행에 정진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붓다 역시 출가하고 6년 정진해서 깨달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과거세에 삶을 거듭해 윤회전생하며 선행을 하고 수행을 거듭하고 다다른 현세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기 이전의 붓다는 보살이라 하는데, 이는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 보살은 바로 부처의 전신인 것이다.

석가모니의 전생 이야기, 그러니까 고타마 붓다가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나기 이전에 보살로서 생을 거듭하는 사이에 천인으로 났다가 국왕으로도 살았다가 도둑의 삶을 살기도 했고, 심지어 코끼리, 원숭이, 공작, 물고기 등 동물로서 숱한 생을 거치며 갖가지 선행공덕을 행한 이야기를 모은 것이 '본생경'이고 현세 이야기, 그 현세의 원인이 된 전세 이야기와 그 결과인 내세 이야기를 엮은 이야기 형식을 본생담이라고 한다.

본생담 형식은 대중에게 쉽고도 재미있게 교훈을 담는 형식이라서 불교가 인도에서 각지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화권의 전승을 담은 다양한 서사로 확장되었다.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아들〉 이전부터, 웹툰이나 웹소설에서 온갖 환생물이 대세가 되기 이전부터도 환생 서사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이라고 포기하려는 대중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응원을 전하는 이야기 형식이었던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교훈이 너무 강조되면 따분하고, 너무 재미만 내세우면 유치한데다가, 워낙 기원전부터 널리 알려진 형식이라 어지간히 창의적이지 않으면 오래 기억될 작품으로 남기 쉽지 않다. 그러니 어린 여자 아이가 겪는 모험으로 본생담 형식을 통해 성장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고전이 된 것은 그만큼 독창적인 세계를 펼쳐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팀 버튼 감독의 영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의 한 장면.

딱 서사 구조로는 사춘기 무렵의 여자 아이가 토끼를 따라 구멍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전세 이야기, 구멍에 빠져 휩쓸리게 된 이상한 나라의 모험은 아이의 눈에는 당대의 정치와 문화가 사뭇 이상하고 기괴하게 비치는 현세 이야기, 그리고 구멍에서 빠져 나온 다음은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내세 이야기라는 전형적 형식이다. 그런데 거기 등장하는 캐릭터나 상황, 풀어가는 방식이 워낙 독창적이다 보니 여러 작가들이 다양한 판본의 그림책으로도 엮어내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도 계속 새로 만들어지곤 한다.

요즘이야 사람처럼 옷을 차려입은 동물을 보는 것이 낯선 모습이 아니지만 여성들이 숨도 못 쉴 만큼 코르셋으로 허리를 꼭 졸라맨 모습으로 나서야 당연하던 시대에는 그게 몹시도 기이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린 엘리스는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보는 토끼가 신기해서 따라가다가 나무 밑에 뚫린 구멍에 빠져 '이상한 나라' 로 갔더랬다.

그곳에서 겪은 일들이 하도 놀라워서 꿈으로 꾸고 또 꿔가며 자란 엘리스가 이제 약혼을 눈앞에 둔 아가씨가 되었다. 팀 버튼 감독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는 이 아가씨 엘리스(미아 와시코우스카)의 이야기다.

엘리스는 코르셋을 입지 않았다고 타박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귀족이라는 '스펙' 말고는 뭐 하나 맘에 들지 않는 남자의 청혼을 당연히 받아들여야한다는 압력을 받고, 미래의 시어머니가 되려는 아주머니한테 아직 결혼을 결심한 것도 아닌 남자를 어찌 받들어야할 지 충고를 받는다. 따분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다.

사람들이 죽 둘러서서 엘리스가 청혼을 받아들이기만을 기다리는 딱 그 순간, 마침 토끼가 나타났다. 조끼를 갖춰 입고 시계도 들여다보는 그 토끼. 그래서 엘리스는 다시 토끼를 따라 이상한 나라로 빠져들어 간다. 그런데, 이 나라는 엘리스가 지금껏 악몽으로 기억하던 이상한 나라 '원더랜드(wonder land)' 가 아니라 땅 속에 있는 '언더랜드(under land)' 란다.

고전된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도
전세-현세-내세 상징 이야기 구조

웹툰 · 웹소설 '환생서사' 전성시대
생을 거듭하며 수행해 부처가 된
부처님 '본생경', 환생서사의 원조

어쨌든 엘리스는 루이스 캐럴의 동화 원작 삽화와 똑같은 옷을 입고 떨어진 땅 속에서,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서 몸도 작아졌다 커졌다 하고, 똑같이 이상하고 정신없는 존재들을 만나 생각지도 못한 모험을 하게 된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존재들도, 엘리스 자신도 엘리스의 정체가 '그 엘리스' 가 아니라 '다른 엘리스' 라고 한다. 달라진 것은 훌쩍 자란 엘리스뿐 아니라, 원작 동화의 흑백 삽화나 예전 디즈니의 아기자기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팀 버튼 감독의 손을 거쳐 2D로 촬영된 화면이 3D 버전으로 바뀐 것까지 포함한다.

〈비틀쥬스〉, 〈가위손〉, 〈슬리피 할로우〉와 같은 작품들에서 팀 버튼 감독은 이미 현실 세계의 부조리와 규범에 숨막혀하며 소녀에서 막 어른이 되기 직전의 아가씨가 기이한 세계로부터 온 존재의 매혹적인 부름을 받고 자신이 속해있는 현실 세계의 문제를 돌아보는 상황을 즐겨 만들어왔다.

그리고 팀 버튼 감독은 〈빅 피쉬〉에서든,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든, 〈유령 신부〉에서든, 부름을 받고 기이한 세계로 갔던 이가 거기서 어떤 문제에 부딪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든 다시 자신이 속한 현실 세계로 돌아갔을 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으로 되돌리곤 했다.

그러나 기이한 세계에서 고군분투하며 겪었던 일들이 주인공을 성장시키고, 그래서 불행할 뻔했던 주인공은 자기 식의 행복을 선택하는 식의 결말, 그러니까 현실을 피해 악몽에 빠졌다가 다시 그 악몽을 통해 현실을 동화로 바꾸곤 했다.

어차피 동화가 원작인 탓도 있지만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도 이런 팀 버튼 식 동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엘리스가 빠져 든 이상한 나라는 '왕대그빡' 붉은 여왕(헬레나 본햄 카터)이 걸핏하면 사람들 목을 베어버리라며 무시무시한 폭정을 펼치는 세계다. 예언서에 따르자면 제대로 된 엘리스는 '좋마운(좋고 고마운, frabjous) 날' 에 '날뜨한(날카롭고 섬뜩한 vorpal)' 검으로 붉은 여왕의 폭정을 뒷받침해주는 무시무시한 괴수 재버워키의 목을 베어야 한단다.

재버워키(Jabberwocky)는 〈거울 나라의 엘리스〉에 나오는 넌센스 시의 제목이다. 말장난의 귀재인 작가 루이스 캐럴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낱말들은 뜻도 발음도 워낙 독특해서 영어의 말맛을 다른 언어로 옮기기 까탈스럽기가 이루 말할 데 없다. 영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서 아마 가장 탁월한 것은 바로 이 말장난을 한국어로 옮긴 자막 번역일 것이다.

처음부터 3D로 기획된 〈아바타〉와 비교해서 입체감이 놀랄만한 경지는 아니라지만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솜씨가 빼어난 팀 버튼 감독이 만들어낸 화면이나, 엔딩 타이틀 곡을 부른 에이브릴 라빈의 뮤직 비디오보다 더 풍성하달 건 없지만 대니 엘프먼의 음악은 충분히 팀 버튼 표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도 모자장수(조니 뎁)의 '으쓱쿵짝(futter-wacking) 춤' 으로 엘리스의 모험을 '즐복한' 여행이 되게끔 마무리해준 것은 말과 문화가 갖는 맛을 잘 살린 한국어 자막 번역자의 공이지 싶다.

당대 최고의 엉뚱한 상상력을 가진 감독으로 꼽히는 팀 버튼이 루이스 캐럴의 기발한 엘리스 이야기를 가지고 마구 난장판을 벌이면서도, 미국식 상업영화가 갖는 교훈적인 성장 영화의 틀에 담은 이 영화는 자신이 미친 게 아닐까 걱정하는 등장인물들에게 거듭해서 "넌 확실히 미쳤어. 하지만 멋진 사람들은 다 미쳤지"라며 지금 벌어지는 온갖 일들이 원래 삶에서 극복할 일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만든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넘나들던 원작의 이상한 나라를 '예쁜 하얀 여왕 좋은 편, 못난 붉은 여왕 나쁜 편' 으로 딱 갈라놓다보니 여왕 앞에서든 재판정에서든 하고 싶은 말 마구 쏟아내며 대들던 원작 이야기의 어린 엘리스가 영화에서는 악에 맞서 싸우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작전을 펼치는 조심스런 아가씨가 되어 있다 보니 엉뚱하고 이상한 나라에서 서사를 돌파하는 주인공 자리는 엘리스가 아니라 모자 장수가 차지하고 있다.

지금 우리 각자가 겪는 세상은 엘리스가 빠져들었던 이상한 나라 못지않게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여겨질 수 있다. 〈재벌집 막내아들〉로 환생한다고 해도 웹소설 원작에서는 복수에 성공했고 드라마에서는 전생을 뉘우쳐 스스로를 구원한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기서 제대로 살아남는 것도 만만한 것이 아니다. 드라마가 원작 소설과 다른 결말 때문에 맥 빠진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생을 거듭하며 다다른 결말이 썩 크게 와 닿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지금 가장 대세인 대중문화로 꼽히는 웹소설과 웹툰은 롤플레잉 게임, 중세 궁정 기사물, 아이돌 데뷔, 기업 경영 등등 온갖 장르가 다 환생스토리이다. 현재가 힘들수록 어느 시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환생이야기는 더 솔깃하기 때문일 것이다.

환생서사에서는 거기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돌파하고, 무엇을 되풀이하지 않는 가에 따라 결과가 바뀌게 된다.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처럼 오래 남는 고전도 나오게 될 것이다. 붓다조차 그토록 여러 생을 거치고서야 깨달음을 얻었다는 본생경에서 힘을 얻듯이, 지금의 대중들은 다양한 환생스토리에서 위안을 얻고 있을 것이다.

2023년은 토끼해, 모두들 이번 생을 돌파할 각자의 토끼를 찾아 '이번 생' 에 이룰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뤄내시기를.

〈영화평론가〉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경남 고성 대명사,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침향
(주)선우아이비오에서는 고품질의 침향(Agarwood)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 유통하고 있습니다.
화학향료, 염료, 접착제 등은 일체첨가하지않은 천연의 향입니다.
진정한 침향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주식회사 선우아이비오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41 (쌍문동) | TEL .02)998-7940
선우몰 www.sunwoomall.co.kr | sunwooibo@hanmail.net